

東南亞 諸國의 電子工業 現況과 展望

本稿는 거대한 세계 電子市場 속에서 점차 그
운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韓國, 臺灣, 香港,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상황과 장래
展望을 파악하기 위해 日本電子機械工業會의 電子
Device業務委員會와 部品運營委員會 중심으
로 電子工業 調查團을 지난 6월에 파견, 최근
調查報告書를 작성하였다. 각국의 최신 資料와
데이터는 각 업체에 귀중한 참고 자료로 기대되
는 바 크므로 概略을 소개한다.

1. 韓國

가. 주요 電子機器의 動向

電子製品 부문은 活況이어서 83년의 생산은
전년대비 38.7% 증가한 55억 5,800만弗, 수출
은 38.8% 증가한 29억弗로 好調였다. 84년에도
마찬가지로 活況을 보여 생산이 73억弗, 수출도
41억弗로 각기 전년대비 31.3%, 37.7%의 증
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작년 3,4월 무렵부터 일제히 浮上하기 시작한

電子産業은 금년 들어와서도 호조를 지속, 주요
機器의 대부분에 걸쳐서 과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主力인 컬러TV를 선두로 Radio C-
assette, Car Radio(Car Stereo 포함)가 눈에
띄게 伸張을 보여 전자산업의 중심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작년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된
VTR이 기반을 굳히고 점차 진가를 발휘하고 있
으며 電子렌지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

Personal Computer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강력한
정부의 지원도 있어서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제품이다.

다만, 작년에 붐을 이루었던 Cordless Pho-
ne은 급격히 위축되어 버렸다.

部品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需給은 타
이트한 상태며, 수출 국내 購買力의 증대를 배
경으로 대규모 家電 메이커 各社의 예상은 좋고
設備 투자 계획도 아주 대규모적이다.

表 1 84年度 韓國의 주요 機器 生産 予測

單位 : 1,000대

品 名	數 量
컬러 TV	6,000
黑白 TV	5,000
VTR	400
라디오	7,500
錄音機	14,500
스테레오	1,500
Cordless Phone	650
Personal Computer	1,460
同 Floppy	80
同 Monitor	980

註 1. 라디오는 Car Stereo 포함

2. Personal Computer는 PCB만을 포함

주목되는 VTR에 있어서는 金星, 三星 2대
메이커가 맹렬한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중에 大
宇가 참여하고 또한 재벌인 現代 그룹도 검토하
고 있어서 巴야흐로 戰國時代에 돌입한 감이 있
다. 작년의 실적은 16만대였으나 금년의 예상은
40만대, 85년의 계획은 120만대라고 한다. 그
에 관련한 85년의 3社의 月産 계획은 金星 4
만대, 三星 4만대, 大宇 2만대라 한다.

나. 電子部品の動向

(1) 일반 電子部品

83年度 韓國의 電子部品 생산액은 24억2,600만弗로 전년대비 33% 증가였으나, 금년에도 家庭用, 産業用機器의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27%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東南亞를 대상으로 한 수출도 内需와 마찬가지로 호조여서 83년에는 전년대비 30% 증가를 보였는데 금년에도 계속되어 같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表2에서 보듯이 Connector의 전년대비 2 배를 필두로 Speaker, Transformer Switch의 신장이 현저하다. 이들 部品에 대해서는 資本 구성으로 보아 Speaker, 固定抵抗器, Connector의 現地産業 비율이 높다.

Radio Cassette, Car Radio의 對美, 對歐洲 수출의 급증으로 Speaker 등 음향부품의 부족이 표면화되고 있다.

對日 半導體 수입 부족은 변함이 없고, 컬러 TV, 電子렌지 등에 대한 部品 조달이 일부 곤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對美 수출의 短期的 成約을 배경으로 85년 이후의 VTR 생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현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현상은 基幹 電子部品の 自國 내 생산 비율이 현재로서는 아직 낮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어느 대메이커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電子工業의 일은 半導體 생산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實現化에 대해서는 人·物·金의 전력

투구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금후 각종 電子部品の 韓國 내 생산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2) 半導體

韓國의 半導體 需要에 대하여 용도별로 살펴보면 컬러TV, 黑白TV 등의 好調, 電子렌지, VTR의 급신장으로 家庭用 분야의 84년은 전년대비 103%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Personal Computer, CRT Terminal, Monitor, Memory, Board 등의 情報産業 관련은 전년대비 133%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韓國에 있어서 Computer의 생산은 84년에만 14個社가 신규로 진출, 약 60個社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대수는 급증, 半導體 需要 확대의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주요 電子機器의 호조에 힘입어 半導體 전체로는 전년대비 113%가 증가, 세부적으로는 MOS IC가 126%, Bipolar IC가 109% Discrete가 110%로 예상된다.

表2. 83年 주요 部品の 生産 輸出 實績

單位：1,000弗

部 品 名	生産 金額		輸出 金額	
	1983	前年對比	1983	前年對比
Speaker	74,287	164	41,126	118
可變抵抗器	44,288	93	6,395	72
固定抵抗器	74,319	122	6,802	80
電解콘덴서	83,086	113	31,322	85
磁器콘덴서	18,844	121	14,741	83
Transformer	80,827	158	9,782	117
Coil	110,624	139	60,181	120
Connector	12,909	200	6,631	245
Switch	44,117	158	15,286	159
主要 9 品目計	533,301	133	178,999	109

韓國에 있어서의 半導體 완성품의 수입 신장은 전년대비 12% 증가, 생산은 15% 증가로 국내에서의 생산 비율이 높다. 일관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곳은 亞南, 三星半導體通信, 金星半導體로서 대부분의 메이커는 後工程만을 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Bipolar IC 69%, Discrete 22%, MOS IC 9%로 MOS의 비중이 낮다.

半導體 메이커의 投資는, 84년에는 金星, 三星, 現代, 大宇 4개 財閥의 합계로 약 22억弗 전후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 그 중 반도체, 컴퓨터, 電子 관련에 약 11억 6,000만弗이 투자된다.

韓國은 제3의 起LSI 量産國으로 착실하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래는 특히 美國市場에서 日本製 半導體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電子管

컬러TV用 Braun管은 TV의 호조에 힘입어 83년부터 풀 가동에 들어갔으나 품종에 있어서는 아직 타이프한 단계에 있어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84년의 생산은 전년대비 36.6% 증가로 추정 500만개가 예상되며, 内需 비율이 95%선이다.

黑白TV用은 세계 제1의 供給國으로서 84년

의 생산은 600만개로 추정된다. 컬러 Display 用은 84년은 試作 단계였으나 85년부터는 三星 電管이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고 後發 2 個社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表 3. 컬러TV用 Braun管 생산·輸出入

	1983年	1984年(推定)
生産	3,660,000 개	5,000,000 개
輸出	30,000 개	200,000 개
輸入	570,000 개	600,000 개
內需	4,200,000 개	5,400,000 개

2. 臺灣

臺灣 經濟는 83年 2/4 分期 때부터 급피치로 회복, 83年の 실질 經濟 成長率은 7.1%로 82年の 3.9%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電機 電子 部문을 중심으로 한 輸出의 증대 때문이었다. 電機 電子 部문은 전년대비 24.4% 증가였다. 84年에도 계속 好調의 推移가 예상되고 있다.

가. 주요 電子機器의 動向

韓國에 主役의 자리를 양도한 臺灣의 家庭用 機器 업계는 Perscom(Personal Computer) Monitor, Cordless Phone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수년 전까지 연간 500만대 이상 생산해 낸 黑白TV는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되어, 韓國 메이커의 OEM을 받는 메이커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電子産業 전체로 보는 한 재작년 급격히 감소되었던 컬러TV의 순조로운 回復, Audio 제품의 고급화, 신규 분야로서의 Monitor의 폭발적인 증가 등에 힘입어 83年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컬러TV는 현지의 Data에 의하면, 83年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down을 보였으나, 83年 2/4 分期 때부터 급상승, 완전히 회복하였다. 금년도 계속해서 好調로 推移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예상했던 210만대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系, 美系메이커가 생산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現地 메이커인 大同, 聲宝도 月産 1만 2,000대 이상의 실적이 있는데 금후 더 증

산이 예상된다.

黑白TV는 韓國의 경쟁력 앞에 일찌기 방향 전환을 결정하여 不採算부문으로부터의 철퇴를 계속 도모하고 있다. 80年을 피크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금년의 예상은 피크 年度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0年에는 557만 7,000대, 84年の 예상은 255만대에 불과하다.

VTR은 韓國에 이어 臺灣에서도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본격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멀어서 현재 모색 단계에 있다.

現地 2 個社의 생산은 月産 수천대 수준이며, 물론 日本系 메이커의 現地生産 계획의 동향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Audio의 주력은 Radio Cassette로서 수량에서 전년대비 50% 가까이 신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HiFi 機器도 순조로이 회복해 Radio Cassette와 함께 82年の 하락으로부터 회복되는 好調로 추이되고 있다. 또 내용적인 변화도 현저히 高級化 지향이 강조되어 80弗 이하의 Low end 商品은 韓國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表 4. 84年 臺灣의 주요 機器 生産 予測

單位: 1,000 대

品 名	수 량
컬러 TV	2,900
黑白 TV	2,550
VTR	160
Audio	30,300
Cordless Phone	1,800
One Piece Phone	2,600
Personal Computer	330
同 Monitor	4,100

註: 1. One Piece Phone에는 Feature Phone 포함

2. Personal Computer는 거의가 Terminal 입.

83년에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Cordless Phone은 部品 사용 點數가 많다는 점도 있고 해서 日本을 포함 全東南亞 各국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일시적으로 黑白TV와 함께 安定 需要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연간 1,000만대를

초과하는 위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想定 需要 숫자를 훨씬 오버하는 생산과 美國에서의 규제 문제에 의해 Cordless Phone의 旗手 臺灣도 생산을 중지하는 메이커가 꼬리를 물게 되어 현재는 日本系 3個社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

One Piece Phone에 대해서는 Clock Radio 附라든가 電卓(Calculator)附 등이라고 하는 Feature Phone을 포함하면 상당한 수가 생산되고 있으며, 部品 點數가 적다고 해도 주시할 수 없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黑白TV의 퇴조와 궤도를 같이 해서 등장한 Monitor는 83년 일찍부터 月産 15만대를 초과하기 시작, 현시점에서는 2배 이상인 35만대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것은 IBM을 필두로 하는 美系 Perscom메이커가 Floppy, Printer 등 다소 高度의 기술내용의 것은 日本에, 비교적 용이하게 생산이 가능한 Monitor는 臺灣이라고 하는 국제분업적인 고려에서 일제히 臺灣 메이커에 注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의 予測은 연간 규모로 400만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말의 不安이라면 Perscom 需要 그 자체가 불투명한 감을 주고 있는데 IBM 등 대규모 Perscom 메이커의 發注量이 당초 계획을 하회하고 있는 일이 지적되고 있다.

나. 電子部品の 動向

(1) 일반 電子部品

臺灣의 電子部品工業의 역사는 오래여서 83년에는 전제조업 생산고의 6%, 全電機 제조업 최대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일반 電子部品种은 81년 후반부터 82년 전반의 세계적인 家電機器 不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83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7%로 아주 순조로운 추이를 보였다.

83년의 생산 규모는 약 2,150억엔 정도, 또한 그 중 8할 정도인 1,663억엔이 美國市場을 중심으로 수출된 것이었다.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으나 香港을 경유해서 中共 本土로 흘러 들어간 것도 상당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로서는 輸出加工區의 해

택 즉, 原材料의 무관세 수입에 덧붙여, 加工區 이외의 메이커도 제품을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해도 관세를 환불받는 것 때문이다.

생산 금액을 資本 계열별로 보면 日本系 메이커가 45%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내 現地系, 歐美系로 되어 있는데 특히 歐美系에 있어서는 Connector, 고정저항기, Transformer 이 외는 거의 진출해 있지 않고 있다.

현재의 部品 메이커는 各社의 Audio, 컬러 Display 등이 好調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능력 이상으로 受注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풀 가동을 할 것으로 강력히 예상되고 있다.

특히 材料面에서는 Ferrite Core의 공급이 부족되고 있고 Speaker, Micro DC Motor 등도 상당한 受注高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금후 장기적인 전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需要의 크나큰 기둥이었던 黑白TV, 컬러 TV 등의 Set가 韓國과의 경쟁에 밀려 家電機器의 대폭적인 장은 기대할 수 없다.

② 韓國, 싱가포르 등 開途國과의 部品價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③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美國市場의 동향에 민감한 것 등의 不安 요소가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반을 깔고 닦아 왔으므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후 OA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電子部品の 공급기지로서 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半導體

83년에는 컬러TV,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한 家電機器의 신장, 電話로 대표되는 通信 분야의 급증, CRT Terminal Monitor 등 EDP 관련 분야의 好調에 따라 전년대비 35% 증의 성장을 보였다.

84년에는 용도별로 보면 Computer와 그 周邊機器에 있어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OEM 방식에 의한 생산이 일층 확대하는 것과 Computer 주변 産業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등으로 인해서 情報·産業 용도 분야의 需要에서는 116%의 성장이 추이된다.

전체로는 30% 증가의 성장이 기대되며 情報産業의 분야구성비도 30%에서 51%로 상승할 전망이다.

臺灣에 있어서 半導體 진출 메이커의 생산 형태는 全工程이 아닌 後工程이 중심이 되고 있다. 메이커 수는 현재 歐美系 5 個社, 日本系 2 個社, 現地 메이커 13 個社가 가동중이며, 수 個社가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表 5. 臺灣의 83 年度 實績

單位: 億엔

品目	生産	輸出
Speaker	181	165
可變抵抗器	17	0
固定抵抗器	114	68
電解콘덴서	115	63
磁氣콘덴서	86	82
Transformer	163	88
Coil	237	166
Connector	1,060	880
Switch	174	151
合計	2,147	1,663

註: 1. 換算 비율:

1 弗 = 230 엔 = 現地通貨

2. 輸出금액: 單品으로의 수출

(Set 組立, Kit 수출 제외)

資料: 日本系部品 메이커 各社 調査

그 중에서도 크게 주목되는 것은, 華僑 자본으로 이루어져 256K DRAM의 생산을 준비중에 있다는 情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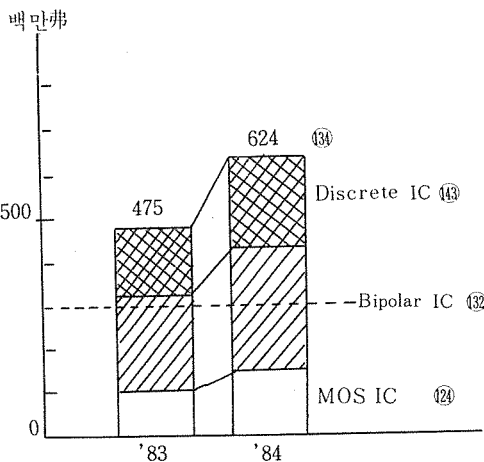


圖 1. 臺灣의 半導體 生産

半導體는, 現地 국내 메이커의 생산이 일부 국내 수요에 부응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 품목에 있어서는 Bipolar

IC, Discrete가 전체의 80%를 점유, 84년의 단계에서는 MOS IC가 20%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중인 工場이 준공되면 서서히 MOS IC의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3) 電子管

TV의 好況에 힘입어 Braun 管의 생산도 好調로 추이되고 있다. 컬러TV用의 84年度 생산 대수는 192 만개, 그리고 黑白TV用은 414 만개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컬러 Monitor 메이커가 7 個社 있으나 신규로 4 個社가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黑白 Monitor 메이커는 20 個社 이상이 있는데 이외에 더 증가될 전망이 강하다.

3. 香 港

83년의 香港은 英國과 中共의 교섭에 의해 香港의 장래를 不安하게 만들므로 해서 株式 및 弗貨의 대파란을 연출하였으나, 經濟 자체는 83년 4月 이후의 對美 수출의 폭발적인 급증, 對中共 수출의 고성장 등에 의해 실질 經濟成長率은 6%였다. 전체적으로 15%의 신장을 보인 工業 제품 수출 중에서 電機, 通信機器 등은 30~35%의 대폭 증가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97년의 문제는 近年, 경제계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후 中共 자본이 어떻게 경영 방침을 세우느냐 여하에 관련 업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84년의 동향에 있어서는, 香港 경제는 단기적으로 상승 경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서는, 對美 수출 환경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對中共 再輸出基地(원자재·반제품을 日本, 美國, 臺灣, 韓國,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수입, 加工해서 中共으로 수출)로서의 香港의 역할에 기대가 높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對中共 수출은 수출과 再輸出을 합쳐서 상위의 기종의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80弗 이하의 Radio Cassette, Walkman Radio, One Piece Phone, Clock Radio, 時計 등이 최적의 생산 품목이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

전반적인 예상으로는 83년의 好調가 계속되고 있으며 85년에 걸쳐서도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년과 83년의 家電機器 수출은 統計에 의하면, 수량적으로는 의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香港弗의 안정으로 인하여 금액면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① Digital Watch

香港産 제품의 핵심이라고도 불리어지는 Digital (LCD) Watch는 83년에도 82년을 대폭 상회하여 月産 2,000 만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메이커 수가 많고 항상 생산 과잉 기미가 常存하여 필연적으로 가격서 83년과 마찬가지로 (83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 84년에도 고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가. 주요 電子機器의 動向

香港의 電子機器는 저가격 제품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資金の 단기적 회전, 상업자본적 색채의 농후, 기초 산업과 기초 기술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본격적인 설비투자를 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투입해 인하 경쟁이 격심하고, 단가의 저하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펜단트, 라이터, 스텝 Pen 등 타제품 분야에서의 市場 확대, Quartz Analog 注力으로 하락세를 커버해 가고 있다.

② 電卓 (Calculator)

電卓 수요는 왕성해서 해마다 순조로운 伸張을 계속해 가고 있다. 特惠關稅의 메리트도 있으므로 해서 拔群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月産 200 만대의 수준에 있는데 더욱 수량은 증가될 전망이다.

③ Cordless Phone, One Piece Phone

韓國 및 臺灣과 마찬가지로 83년에, 王子의 지위에 있었던 Cordless Phone, One Piece Phone의 凋落은 Shock였다. 특히 One Piece Phone의 落差는 격심해서 피크時에는 月産 300 만대까지 달하였던 수출물량이 3분의 1로 곤두박질, 금년에도 월간 100 만대를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Cordless Phone은 美 FCC의 規制 및 그 영향에 따른 구모델, 제품의 在庫要因 등 不安 요소가 있으며, 뿌리 깊은 需要 기조에 의해 微增이 예상된다.

表 6. 84年度 香港의 주요 機器 生産 予測

單位 : 1,000 대

品 名	數 量
컬러 TV	756
Radio	4,800
錄音機	22,300
Stereo	1,400
Cordless Phone	1,620
One Piece Phone	13,620
Personal Computer	120
同 Floppy	200
同 Keyboard	3,660

註 : 1. Radio 중 20% 이상은 Car Radio 임
 2. 錄音機 중 30% 이상은 Walkman type 임
 3. One Piece Phone 중 27%는 Clock Radio 附임.

④ 其 他

82년에 피크에 달하였던 TV Game은 83년부터 하락을 시작, 금년에도 역시 浮上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Perscom에 있어서는, 아직 香港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과 5個社 정도가 PCB의 組立을 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Perscom用 部品の 수출이 83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供給基地로서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이 경향은 급후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電子部品

(1) 일반 電子部品

83년까지는 이것의 확보가 위주였던 香港 市場에서는 최근, 現地 메이커의 우선 回收 조건의 개선 등에 部品 各社 영업의 主力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득이 별로 없었던 손목시계 메이커 중에서 電話機 제조로 달려든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메이커를 상대로 해서 部品 메이커들은 金融力, 제조력, 기술력 등에 종래 이상으로 철저히 체크를 강화해서 選別 受注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최근의 크나큰 특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部品은 香港에 대규모인 생산거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도 臺灣,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Set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수입된 部品の 대부분이 中共에 再輸入되고 있으며, 中共

의 輸入 部品 전체의 25%를 점유하는 것은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表7 참조)

表7. 香港의 일반 電子部品の 주요 調達루트

品目	調 達 先
電解콘덴서	臺灣製가 제일 많다. 中共製도 약간 出回하기 시작하였다. 香港에는 제조 메이커가 없다.
固定抵抗器	臺灣製가 많다. 다음으로 韓國으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PCB	Local 製가 많다(약60%). 전체 물량이 수입된다.
Volume	韓國, 臺灣製가 많다.
Speaker	臺灣(약50%), 韓國(약35%), 現地(약6%), 日本(약4%) 순으로 수입되며, 中共製도 약간 있다.
Transform-mer	現地 조달이 압도적으로 많다.
Coil	現地 조달이 압도적으로 많다(70%) 그 중 90%는 委託加工이다.

일반 電子部品도 香港에 있어서 97년의 문제를 무시하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금후 香港은 電子部品の 對中共 輸出入 中繼基地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日本系 現地 진출 企業의 공통된 견해는 ①대 User를 중심으로 한 選別受注 ②中共 Market에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85년에도 伸張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 메이커도 대단히 희망적 觀測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2) 半導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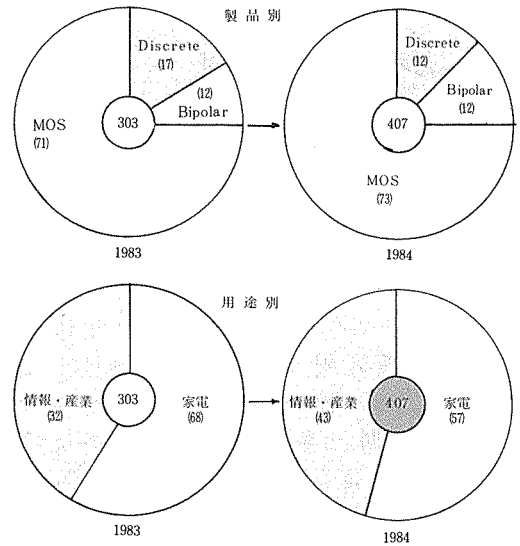
83年은 TV Game의 半減이 있었으나 時代, 電卓, 음향기기 등 家電機器 분야의 회복, 電話를 중심으로 하는 Communication 분야의 급신장, Perscom을 필두로 하는 EDP 관련 분야의 出現에 의해 전년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84年の 半導體 需要에 대해서는 家電 분야의 제품이 비교적 堅調를 유지할 것으로 推移하고 있으며, 電話 관련에서는 One Piece Phone 이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Cordless Phone의 微增 및 多機能 電話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Perscom 관련(PCB의 組立이 중심)의 需要는 서서히 증가하여 비교적 착실한 신

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用途別로 보면 情報産業 분야 需要의 비율은 높아져서 32%가 43%로 상승되며, 제품별로는 MOS IC 관련 제품이 약간 증가함에 따라 전체로서는 3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内%構成比

圖2. 香港의 半導體 需要 動向

현재 香港에 진출해 있는 外資系 半導體 메이커로서는 TI(Texas Instruments), Fairchild, Motorola, NS, Philips 5個社가 있으나 모두 後工程 처리만 하고 있다.

(3) 電子管

香港에서 소비되는 TV用 컬러 Braun 管은 100%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컬러TV의 수출은, 83년에는 전년대비 3.2배라고 하는 대규모 급신장을 나타냈는데, 금년에도 前半에는 好調로 추이되고 있다.

黑白TV用 Braun 管도 공급 Source는 거의가 日本이지만, TV의 생산은 83년에 26%나 急落 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下向勢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생산 메이커는 1個社뿐이다.

(4) Display

Perscom은 現地 기업으로는 技術 開發力の 부족으로 금후 美國의 OEM이 아닌 이상 대폭 신장은 전망하기가 어렵다. 外國系 자본의 對

香港 투자가, 香港 Computer 메이커의 금후 伸張 여부의 Key를 장악하고 있다.

컬러 Display用 Braun管의 수입은 83년에 전년대비 2.3배라고 하는 대폭적 성장을 보였으나 美系 기업의 동향 여하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黑白 Monitor는 약 30% 신장한 정도였다.

4.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83년의 싱가포르 經濟는 실질 經濟成長率이 7.9%로서 前年の 6.3%에 비해 현저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東南亞에서 9.3%인 韓國 다음 가는 성장률이다.

總生産에서 製造業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特記할 만한 것은 電機, 電子産業 및 金屬工業 부문에서의 경기 회복이다. 美 經濟의 회복이 크게 영향을 주어 83년 2/4 分期 이후 이 부문은 對美 수출이 급증하여 電機, 電子 부문이 전년대비 14% 증가, 産業 및 금속공업 부문(Perscom 관계를 포함)이 同 12% 증가의 活況을 보였다.

싱가폴 경제는 84년에도 계속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高賃金 체계를, 生産性を 높여 이것을 여하히 흡수해 갈 것인가가 同國에 있어서 企業 經營者가 안고 있는 課題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政府는 ①高度 성장 ②완전 고용 ③低 Inflation 정책을 국가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은 위해 High Technology 産業 등 高附加價值産業의 육성, 生産性 향상 등을 부르짖고 있다.

(1) 주요 電子機器의 動向

싱가폴의 電子機器 생산은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과거 최고 記錄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말 好況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컬러TV는 전체 메이커가 전년대비 50% 증가 이상의 Full稼動에 들어가 있다.

음향기기 관계의 회복도 눈부신 것이어서 거의 과거 피크時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내용적으로도 高級機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82년의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中小企業이 정리되어, 남아 있는 메이커가 각기 특징을 살려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싱가폴의 최대 특징은 Computer 관련 機器라 할 수 있다. 政府의 Intelligence 産業에 대한 강한 誘致策도 있어서 Perscom을 중심으로 하는 Computer 관련 産業의 臺頭에 돌리고 있다.

美系, 日系 메이커의 진출이 점차 東南亞에 있어서 Computer 基地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그 대부분이 Floppy Disk 및 Keyboard의 PCB 組立에 머물고 있고 完製品의 생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83년의 싱가포르 電子 産業의 생산액은 6,820억円, 전년대비 25% 증가로 과거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최대의 Market인 美國의 경기 회복이 크나큰 공헌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중심적 제품은 Computer 관련과 IC로 금후에도 牽引車의인 역할을 담당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싱가포르 電子産業의 기둥이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Computer 관련 機器는 다른 東南亞 제국에서 손을 쓰지 않는 FDD(Floppy Disk Drive), Printer를 포함 순조롭게 움직여 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동일한 商圏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로부터의 Shift와 歐美系, 日系의 신규 진출에 의해 급격히 電子機器産業이 發芽하기 시작하여 장래 크나큰 생산기지로 발전해

表 8. 84년 싱가포르의 주요 機器 生産 現況

單位: 1,000 대

品 名	數 量
컬러 TV	3,500
黑白 TV	200
Radio	9,660
錄音機	13,500
Stereo	660
One Piece Phone	240
Personal Computer	3,000
同 Floppy	3,600
同 Monitor	150
同 Keydoard	360
同 Printer	660

註: 1. Radio 內 55%는 Car Audio임

2. Personal Computer는 대부분이 PCB의 組立임.

表9. 84年 말레이시아의 주요 機器 生産 現況

單位: 1,000대

品名	數量
컬러TV	960
Radio	6,720
錄音機	2,340
Stereo	60
Floppy	600~1,200

갈 여지가 다분하다.

현시점에서는 싱가포르의 생산이 Shift 되었던 Low End의 Radio Cassette와 Car Stereo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기타는 조호르의 Sharp와 쿠알라룸푸르의 松下 2個社가 컬러TV를 생산하고 있으며, 香港과 美 資本이 손잡은 Atlas Intek社가 페낭에서 Floppy를 생각하기 시작한 정도에 불과하다.

나. 電子部品

(1) 일반 電子部品

83年 싱가포르의 일반 電子部品 생산은, 同國에 있어서 전자공업도 활황을 반영하여 各社 모두 생산능력 이상으로 受注를 받는 상황이었다.

특히 多量의 일반 電子部品이 사용되는 컬러TV가 需要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對美 電子部品 수출도 급증하고 있으며 Monitor, 半導體, IC, PCB, 抵抗器, 콘덴서를 중심으로 금년말에는 전년대비 50% 성장을 점치고 있다.

전체 규모의 7~8割은 日本系 메이커에 의한 생산이다. 이것은 Set 메이커에 비교적 많은 歐美系 메이커가 진출해 있는 사실과는 이질적인 현상이다. 최근 電子部品 메이커의 최대 문제와 관심사는 勞動力 부족이다. 특히 部品 메이커는 1인당 생산성이 Set에 비해 낮아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면도 있고 需要가 왕성한 오늘날,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 部品産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① 노동력 부족, 賃金 상승에 의한 Set 메이커의 말레이시아, 臺灣으로의 Shift 加速 ② 家電機器에서는 컬러TV 이외에 크게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非家電 분야

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감이 강하다.

이런 사항 등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 내에서의 素材産業이 착실히 힘을 키우고 있고, 日本으로부터 素材를 수입함에 따라 低價, 또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加工 精度가 日本과 비슷하게 되고 있다는 등, 部品産業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으며, Set의 동향과는 별도로 수출을 중심으로 部品産業은 확대될 것이다.

(2) 半導體

싱가포르의 半導體 需要는 Business Computer, Computer Board, FDD, 中級 Personal Computer, Winchester DD 등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表10.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의 一般部品 生産 動向
84年 6月 時點

品目	生産金額 100만개/月	主要 메이커
Speaker	2	Foster, 松下
可變抵抗器	18	帝通工, 松下
固定抵抗器	300	興亞電工, 펜싱, ASJ, 온리리
電解콘덴서	92	日콘덴서, 日케미칼, 루비콘, 松下, 東芝
磁氣콘덴서	200	Murata, KCK
Transformer	1.4	松下, 加美, Tamura
Coil	18	松下, Sumida, 東光, 미쯔미
Connector	-	모렉스, 타이코, 스키멩, 오난바
Switch	0.2	松下, Takara

市場 전체로서는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제품별로는 MOS IC가 構成比를 높이고 있고 특히 MOS Memory, Micro Computer의 需要가 증가하고 있다.

64K DRAM의 수요는 83년에 130만개/月, 84년에는 250만~300만개/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로 보면 家電系의 수요는 감소 경향이 되고 EDP 및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한 情報産業系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半導體 생산은 總工程에서 현재 美系 7個社, 歐洲系 2個社, 日系 2個社 합계 11個社가 진출해 있다.

半導體 완성품의 경우 內需는 적고 90~100%가 美國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페낭 지구에 8個社(美系 7個社, 日系 1個社), 쿠알라룸푸르 지구에 7個社(美系 5個社, 日系 2個社), 말라카·세라반·조호르 지구에 5個社(美系 3個社, 歐州系 2個社) 합계 20個社의 반도체 메이커가 진출해 있다.

생산 형태로서는 모두 後工程 처리를 하고 있다. 물론 국내 수요는 거의 없고 100%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 Intel, NSC, AMD, 日立 등이 增産을 위해 投資를 활발화 시키고 있다.

(3) 電子管

아세양 지역 유일의 Braun管 생산 메이커인 HEDS社는 풀 가동을 하고 있으며 TV의 好況에 발맞추어 好調가 예상되고 있다. 部品の 타이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對策으로 Set 메이커는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TV用 Braun管的 84年 생산(推定)은 전년대비 23.8% 증가인 156개였으며, 수출이 60%였다. Display用 컬러 Braun管은 100% 對日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5. 各國의 今後 課題

전반적으로는 日本과 같이 好調를 보이고 있는 東南亞 各國의 電子産業이지만 各國別로 살펴보면 금후 발전을 해 나아가는 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국의 금후 課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韓 國

韓國의 電子産業은 종래 家電機器를 중심으로 규모의 확대를 도모해 왔다. 그것이 현재는 High Technology産業으로의 전환점에 처해 있으며 日本에 이어 「High Technology 先進國」을 목표로 官民一體로 추진해 가고 있다.

지난번에 韓國 政府가 발표한 政府 참가의 超 LSI의 공동 사업이 그 一例가 된다. 정부와 財閥 4 그룹에 의해 구성된 LSI의 공동 개발 사업은 89年을 제 1 단계 목표로 하여 IM DRAM의 개발을 공동 지출로 계획해 나아갈 방침이다. 정부는 半導體가 금후 한국의 주력 輸出品

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技術集約産業의 발전에 전면 지원 체제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기업도 자력 개발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 체제를 굳혀 가고 있다.

또한 High Tech 분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있어서 최대의 고민거리는 어떻게 尖端 技術을 확보, 도입하는가 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본래 한국의 産業은 日本 및 美國 등 외국의 도입 기술을 기초로 해서 발전해 왔으며, 技術 移轉을 제외하고는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의 韓·日間 High Tech 技術 제휴로서는 수개사의 VTR 및 IC(Linear)의 기술 제휴 및 제조기술 제휴뿐이지만, 최근 韓國의 기술 件數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메이커가 High Tech 技術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歐美의 존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半導體 사업에 진출한 三星, 金星, 現代, 大宇의 4 그룹은 차차 美國의 Silicon Valley에 現地工場 및 연구소를 설립, 기술정보 수집 및人材 획득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2) 臺 灣

臺灣의 電子機器 수출은 타품목을 앞질러 top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금후 電子工業界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결코 밝지만은 않은 다음의 課題를 안고 있다.

①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需給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고 특히 美國의 영향력은 크다, ② 家電機器에 있어서는 黑白TV의 例에서 보듯이 韓國의 先導 추월로 인해 급격히 産業機器로의 탈피를 도모하고 있는 先行의 불투명감을 벗어날 수 없다, ③ 對中共 本土와의 관계.

臺灣의 電子工業도 벌써 變換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對中共에 대해서는 香港에의 對應과 같은 현재의 中共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對中共의 수출은 물론 증가되는 일은 있어도 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現地에서는 보고 있다.

(3) 香 港

97年の 問題가 香港 電子産業에 미치는 영향은 Electronics가 금후의 전세계의 核心 産業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他産業 이상으로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진전되어 갈 것이다.

(P. 90으로 계속)

□ 韓國電子(株)

- 변경일 : 1984년 9월 14일
- 변경후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의회관(Chamber Bldg. 9층)
- 변경후 전화번호 : 757 - 5700/22

□ 三星電子(株)

- 변경일 : 1984년 9월 15일
- 변경후 전화번호(수원공장) : (0331) 33 - 3333,
3355, 3366, 3377

□ 韓國 OSM컴퓨터(株)

- 변경일 : 1984년 9월 15일
- 변경후 전화번호 : 784 - 7841

□ 우진실업

- 변경일 : 1984년 9월 22일
- 변경후 주소 : 서울 강남구 방배동 산 85 - 2

- 변경후 전화번호 : 582 - 1214, 585 - 7148

□ 金星포스타(株)

- 변경후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국제보험빌딩 1108호)
- 변경전 주소 : 서울 중구 무교동 25 - 1
(원창빌딩 608호)
- 전화번호(변동없음) : 778 - 5630, 779 - 2488

□ 경원웨어라이트공업(주)

- 변경후 대표자 : 허금자
- 변경전 대표자 : 김상희
- 변경후 상호 : 경원웨어라이트공업(주)
- 변경전 상호 : 경원웨어라이트공업사

□ 세양전자공업사

- 변경후 전화번호 : 804 - 7799, 2334, 805 - 9123

.....〈P. 54에서 계속〉.....

半導體 및 일반 電子部品 모두 中共 市場에의 적극적 政策이 방법, 수단은 어찌 되었든 香港에 있어서는 크나큰 戰略이 된다. 종래 香港은 國家로서의 統一 思想이 희박했기 때문에 High Tech에 대한 적극 政策이 없고 기술 축적이 없었던 일이 최근에 와서 表面化 되고 있다 한다.

VTR 및 Perscom, OA 機器 등 금후 세계적으로 增産이 고려되는 機器에 대한 對應은 다소의 우회를 전제로 한 資金力 및 技術力, 生産力으로는 소화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종래 이상으로 香港은 輸入 再輸出의 전형적 商社 기능화 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4) 싱가포르

政府는 노동집약형 산업보다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해 왔으나 電子産業

에 있어서는 현재 바야흐로 전환기에 처해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크나큰 문제의 하나가 勞動力 부족과 賃金 상승에 의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이다.

두번째의 문제로서는 각 Set 메이커는 非家電 분야로의 전환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었던 Floppy Disk가 83年 피크時的 약 절반이 되는 등 불투명감이 강하다. 반면에 그 政治, 경제적 안정성에서 美, 日의 分工場, 配送 센터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製造業은 一次產品 가공업, 섬유산업, 電子·電機産業의 세 업종에 치우쳐 있어서, 産業의 다양화가 금후 큰 課題가 될 것이다.